

『草窓訣』中「用藥勸」에 관한 研究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尹暢烈 *

A Study on *Yongyakgwon*(用藥勸) in *Chochangkyeul*(草窓訣)

Yun Chang-Yeol *

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eajeon University.

Objectives : Written by Yoongdongri in the 18th century Chosun, *Chochangkyeul* is a book that specially deals in Ungi. Yoon understood a person's body constitution by taking into factor the person's birth year, and used this information to determine his Ungi type, and understood his disease mechanism.

Methods : Following the study on the first part of *Chochangkyeul*, named *Ungiyeonron*, the paper tries to study the book's second part, called *Yongyakgwon*. The book's core messages are summarized upon a thorough inspection.

Results & Conclusions : Yoondongri was a highly-acclaimed doctor in the 18th century Chosun, and also an Ungi practitioner who utilized the theory of Ungi in his clinical practices. His practices were mainly based on the prescription of Ungi found in Chenwuze's *Sanyinfang*, coupled with almost all parts of *Donguibogam's* Husebang. He had an extensive clinical experience which helped him describe his methods of quickly responding to the side effects that sometimes occur due to misuse of medicine. Such detailed descriptions are never found in past medical books, which gives Yoon's book a great level of historical importance. *Yongyakgwon* divides the scripts between Gabsin, Muui, Byungye, Gyungjeong, and Yimgi in accordance with the theory of Ounhabgi, and also introduces treatments based on Yukisachun. *Jangbupasuyak* also introduces about six external organs and six internal organs with relation to treating wind medicine, treating heat medicine, treating cold medicine, treating dry dampness medicine, dryness-moistening medicine, pulling meridian medicine. All of these can be applied to patients easily.

Key Words : *Yongyakgwon*, *Chochangkyeul*, Ungi, Yoondongri, Yoonchochang

* Corresponding Author : Yun Chang-Yeol. Dept. of
Medicine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eajeon University. Yongun-dong, Dong-gu, Daejeon.
Tel : 042-280-2601 E-mail : yooncy@dju.co.kr

1. 序 論

『草窓訣』은 草窓 尹東里(1705~1884)가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운기전문서이며 運氣臨床 醫書이다. 이 책은 淡窩 洪啓禧(1703~1771)가 쓴 跋文이 있는 것으로 보아 책으로 저술되어 출판을 준비했던 듯하나 10여 종류의 필사본만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정식으로 출판되지는 않았던 듯하다. 尹東里는 坡平尹氏 시조 莘達의 27세손으로 제 2차 왕자의 난 때 李芳遠을 도와 亂을 평정하는 데 참여하여 佐命功臣에 추대되었고 이조판서를 지냈으며 昭靖公의 시호를 받은 15세 坤의 후손이다. 高祖父 焯은 1637년 강화도가 淸軍에 함락될 때 싸우다 전사하여 忠憲이란 시호를 받았으며 할아버지 撒이 노론의 거두 拯과 6寸間이어서 어려서부터 儒學을 깊이 공부하였으리라 추측되며 淡窩가 跋文에서 正士인 그가 醫術을 행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겼으니 儒醫라 하여도 무방할 듯하다.

『草窓訣』은 당시에 출판이 되지 않았으나 치료효과가 뛰어나 집안에서 전해오던 것이 주위에 筆寫되어 퍼지고 秘傳되었기 때문에 그의 號를 따라 『草窓訣』, 『三里訣』, 『草堂遺訣』(草堂은 草窓의 傳寫之誤인 듯하다)처럼 訣字가 붙었으리라 추측되며 이외에 『艸窗三里』, 『運氣衍論』, 『五運六氣篇』, 『運氣誌』 등의 異本이 전해지고 있다.

尹東里는 그만의 독특한 운기이론인 五運合紀, 三紀相通 등을 창안하였으며 남송 때 陳無擇이 지은 『三因方』의 五運과 六氣에 대한 처방과 동의보감에 있는 처방을 活用하여 그 사람이 태어난 해와 當年の 운기에 근거하여 임상을 한 결과를 『草窓訣』에 수록하였다. 『草窓訣』은 크게 運氣衍論과 用藥勸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筆者는 앞서 『尹東里의 家系와 草窓訣 中 運氣衍論에 관한 研究』라는 논문을 쓴 바 있고 이어서 본 논문을 준비하게 되었다. 用藥勸의 중요한 특징들은 첫째, 運氣에 따라 『동의보감』에 있는 처방을 活用하였을 때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또는 부작용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법을 자세히 서술한 것이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

상한론』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오랫동안의 임상경험과 세밀한 관찰이 없었다면 이러한 것을 기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尹東里 자신도 用藥勸義에서 自負心을 드러내고 있을 정도이다. 둘째, 그만의 독특한 운기이론인 甲辛, 戊乙, 丙癸, 庚丁, 壬己의 合紀에 따라 多數의 처방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동의수세보원에서 四象體質에 따라 배속된 처방을 나열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할 수 있다. 셋째는 六氣인 子午, 卯酉, 辰戌, 丑未, 寅申, 巳亥를 나열하고 역시 소속된 처방을 배속하고 있는 것이다. 처방은 거의 모두 『동의보감』에 있는 것들이고 자신의 창방은 거의 없다. 『草窓訣』에 대한 연구는 金準泰¹⁾와 윤서현²⁾의 연구가 있으나 『用藥勸』의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본 논문의 底本은 『草窓訣』(朴寅商編, 漢城出版社, 1980)을 사용하였다.³⁾

2. 用藥勸의 內容分析

1) 用藥勸序의 內容 분석

이곳에서는 저자가 의학을 공부하게 된 내력을 밝히고 있는데 원문을 번역하고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季父 農村先生은 聞于先君子讀易齋先生하고 不肖는 受於農村先生하니 吾家醫學이 三世而讀易齋先生은 才高學博하시고 農村先生은 敏敏造銳하나 不肖는 質鈍識蕪하야 百不肖似而至於小技에도 亦無繼其萬一하니 後之人이 看此에 知吾家醫淵之有素也라 不肖東里는 敬識하다 歲 丙寅 仲夏라.

계부인 농촌선생은 돌아가신 아버지 讀易齋선생에게 공부를 배웠고 나는 농촌선생에게서 수업하였으니 우리 집안의 의학이 3세를 이어왔고 독역재선

- 1) 金準泰. 尹草窓의 生涯와 草窓訣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1993.
- 1) 金準泰. 尹草窓의 生涯와 草窓訣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1993.
- 2) 윤서현. 草堂遺訣의 교감 및 서지학적연구.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2014.
- 3) 尹草窓. 著. 朴寅商 篇. 草窓訣. 서울. 漢城出版社. 1980.

생은 재주가 높고 학문이 넓었으며 농촌선생은 품부 받은 자질이 총명하고 조예가 날카로웠으나 나는 자질이 노둔하고 학식이 거칠어 모든 것이 두 분에게 미치지 못하여 작은 기술까지도 만에 하나도 계승함이 없었으니 후세의 사람들이 이를 봄에 우리 집안의 의학의 연원이 근본이 있었음을 알 것이다. 못한 윤동리는 삼가 기록한다. 서문을 쓴 해는 병인년(1746년) 음력 5월이다.

위의 내용을 보면 윤동리의 아버지 頤敎(1680~1745)가 막내 동생 雨敎(1695~1737)에게 의학을 가르쳤고 윤동리는 季父에게서 의학을 배웠으며 두 사람은 모두 훌륭한 학자였으나 자신은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고 지극히 겸손하게 「用藥勸」의 서문을 쓰고 있다. 집안의 의학이 3세를 이어왔다고 하였으니 집안의 의학은 부친인 尹頤敎로부터 시작된 듯하다.

2) 用藥勸義 내용 분석

제목이 없으나 첫 문장이 이 단락의 제목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用藥勸義라는 제목을 붙이고 내용을 분석하였다.

用藥勸義는 何取오 爲常目不欲輟耳라 昔人十勸이 亦是已니 吾竊擬之라 竊念 臟腑陰陽經絡之表裏와 營衛之旺羸가 不一하니 六氣之盛⁴⁾과 七情之亢이 相鑿(鑿는 戾와 同)하면 則邪之輕重淺深하니 非飲上池하야 看透皮膜者면 亦何能銖兩之며 尺寸之하야 箇箇得中하야 一一得已也哉아 一方有誤면 害輒隨焉이라 于斯時也에 倘不圓機運活이면 所惜은 獨非人命歟아 必惕悟改方이리라 若扶楫臨覆之舟하야 支木將傾之厦然後에 可以轉危而安하야 起死而生이라 矧乎 醫獨非我니 陋工粗手이 妄施非藥者할새 猝我當之면 亦將奈何아 無事之日에 常對此冊하야 以爲某方之害는 以某方救之하고 某藥之失은 以某藥解之라 此劑似可效로대 效反斬奏면 以此藥則必效오 彼湯似可驗이로대 驗卒不見이면 以彼丸則必驗이라 勸之手則目勸하고 目勸

則心勸하야 瞭心目閑手筆然後에 庶可臨病不眩하고 轉害爲效也리라 此雖讓華扁于⁵⁾數步로대 而較諸誤治妄施하야 以禍生命에 語同年哉리오 不佞이 醫世并許載에 縱不積德이나 亦無費人이오 而人才有萬이나 或不吾逮者는 以此冊自勸則 所得不翻라 先儒論近思錄에 昔爲學難이러니 今爲學易라하니 爲其階級分明故也라 醫亦一學也라 不敢自許於今易로대 而祇論用藥一節은 則不必自讓云이라 草窓道人은 序하다.

用藥을 권면하는 뜻은 무엇을 취한 것인가. 항상 눈을 붙여 그치지 않게 하고자 함을 위할 따름이다. 옛사람의 10가지 권함이 또한 이것일 뿐이니 내가 그윽히 거기에 비교해 보았다. 나를 생각해 보건대 장부의 음경, 양경의 표리와 영기, 위기의 왕성함과 쇠약함은 한결같지 않으니 6기의 왕성함과 7정이 항성하여 서로 어그러지면 사기가 침범하여 경증, 중증, 천표에, 심부에 병이 생기니 편작처럼 이슬로 약을 먹어 皮膜을 꿰뚫어 보는 자가 아니면 어찌 능히 무게를 알며 길이를 재어 날날이 증도를 얻으며 하나하나 자신이 터득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한 처방이라도 誤用함이 있으면 부작용이 곧장 발생하게 된다. 이때에 만약 융통성 있게 영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아까운 것은 오직 사람의 목숨이 아닌가. 반드시 두려워하고 깨달아 처방을 바꾸게 될 것이다. 만약 장차 전복하려는 배는 노를 잘 저어서 바로세우고, 장차 기울어지려는 집은 나무를 잘 받쳐 지탱시키는 것처럼 한 뒤에야 위태로움을 바꾸어 편안하게 하고 죽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 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하물며 치료는 나만이 하는 것이 아니니 비루한 의사가 거친 의술로 망령되어 증에 맞지 않는 약을 투여하였을 때 갑자기 내가 거기에 해당되면 또한 장차 어찌할 것인가. 한가한 날에 항상 이 책을 마주하여 어떤 처방의 부작용은 어떤 처방으로 구원하고 어떤 약의 부작용은 어떤 약으로 해독시킬 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약제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았으나 도리어 부작용이 났을 때 이 약을 쓰면 반드시 효과가 있게 될 것이요. 저 탕제가 효험이

4)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43冊). 서울. 龍江出版社. 1994. p.87에 의거 感을 盛으로 바로 잡았다.

5) 尹東里. 草窓訣. 韓國醫學博物館 所藏 筆寫本(유물번호 52490)에 의거 手를 于로 고침.

있을 것 같았으나 끝내 효험이 없으면 저 환약을 쓰면 반드시 효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손에서 권면하면 눈에서 권면하고 눈에서 권면하면 마음에서 권면하여 心目에서 요연히 알고 손에서 쓸 때 여유가 있는 뒤에라야 거의 환자에 입해 당황하지 않고 부작용을 돌이켜 효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비록 화타 편작에게는 서너 발자국을 양보할 수 있지만 함부로 약을 써서 誤治하여 生命에 재앙을 끼치는 것과 비교함에 동일 선상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내가 세상에서 의술을 행한지 20여년에 비록 積德은 하지 못했으나 또한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었고 인재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혹 나에게 미치지 못하는 자는 이 책으로 스스로 힘써 공부하면 얻는 바가 적지 아니할 것이다. 先儒가 『근사록』에서 옛사람은 학문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학문하는 것이 쉽다고 論했으니 단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의학도 하나의 학문이다. 감히 지금(이 책을 지어) 쉽게 할 수 있게 했다고 自負하지는 않지만 단지 用藥을 論한 一節만은 스스로 사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초창도인은 서문을 쓰다.

用藥勸義란 약을 올바르게 잘 쓸 것을 권면한다는 뜻이다. 윤희리는 어떤 처방과 어떤 약을 썼을 때의 부작용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랜 임상 경험과 세밀한 관찰이 없이는 감히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초창결』의 특징은 운기이론을 임상에 응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지만 처방과 약을 썼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에 민첩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기술한 내용은 과거의 의서에도 집대성된 내용이 거의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는 뒤의 『雜錄』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으로 그곳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3) 五運 五臟의 내용 분석

이곳에서는 먼저 6甲년에는 附子山茱萸湯, 6辛년에는 五味子湯, 6戊년에는 麥門冬湯, 6乙년에는 紫

菀湯, 6丙년에는 黃連茯苓湯, 6癸년에는 黃芪茯苓湯, 6庚년에는 牛膝木瓜湯, 6丁년에는 菴蓉牛膝湯, 6壬년에는 苓朮湯, 6己년에는 白朮厚朴湯을 쓴다 하며 그 처방이 나와 있다. 이 처방들은 모두 『三因方』에 나와 있는 처방이다⁶⁾. 『동의보감』의 天地運氣條⁷⁾에 위의 처방이 모두 제시되어 있고 『三因方』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三因方』을 살펴보면 처방 구성은 같으나 『동의보감』에서는 용량을 다르게 하였다. 윤희리는 용량은 『동의보감』에서 정한 것을 따르고 있다. 이어서 子午년에는 正陽湯, 卯酉년에는 審平湯, 辰戌년에는 靜順湯, 丑未년에는 備化湯, 寅申년에는 升明湯, 巳亥년에는 敷和湯을 쓴다고 하면서 처방구성이 나와 있는데 역시 『三因方』에 있는 처방⁸⁾이고 용량은 『동의보감』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正陽湯은 十味導赤散, 審平湯은 麥門冬湯, 靜順湯은 胃苓湯, 備化湯은 不換金正氣散, 升明湯은 龍膽瀉肝湯, 敷和湯은 荊方敗毒散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윤희리의 독창적인 견해이다. 그리고 이어서 交感黃連丸과 十味導赤散의 주치증과 처방을 소개하고 있다.

(1) 五運

이 단락에서는 十干에 따라 6甲年에서 6癸年까지의 앞에서 소개한 10개 처방 하나 하나에 대한 임상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6甲年에 쓰는 附子山茱萸湯에 관한 내용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뛰어난 효과가 있지만 병이 나오면 중지해야 한다. 만약 남은 증상이 있고 水가 脾土를 侮하여 脹滿이 된 자는 復元丹을 쓰고 腎氣가 손상되어 허리와 다리가 아픈 자는 八味 혹은 八味加人參湯을 쓰고 濇腎散을 이어서 쓴다. 비록 약간의 효과는 있지만 煩躁症이 있는 자는 진액이 손상된 것이니 보중익기탕에 황기를 빼고 인삼은 반으로 줄이고 석고 5돈, 맥문동 1돈을 가해서 쓴다. 만약 小便不禁하거

6) 陳言. 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p.64-67.

7) 許浚. 原本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7. pp.334-335.

8) 陳言. 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p.68-71.

나 小便不通하면 毒이 뭉친 것이니 오령산에 황련, 석고를 加해 2~3첩을 쓴다. 갈증이 심하면 점차 大熱해 지는 것이니 만약 급히 치료하지 않으면 반드시 大害가 있게 된다. 백호탕에 창출 1돈, 지모, 황백 각 8푼, 맥문동 1돈반을 이어서 쓰고 또 육미탕에 滋腎丸 100여개를 삼키거나 혹 육미탕에 지모황백을 加해도 괜찮다. 만약 風症 浮症을 發汗시켰거나 혹 설사가 많이 나되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또한 점차 毒이 발작하려는 것이니 급히 인삼백호탕으로 치료하되 加하는 것은 위와 같다. 附子를 誤用한 부작용은 석고가 아니면 해독이 되지 않으니 백호탕으로 치료한다. 땀이 나는 자는 인삼과 백출을 넣지 않으나 백호탕은 아직 심해지지 않았을 때 예방하는 약으로 毒이 크게 발작하면 치료할 수 없으니 마땅히 상세히 살펴서 써야한다.”

위의 내용을 보면 하나의 처방이 듣지 않을 때 처방을 바꾸어 쓰고 효과가 미약하거나 부작용이 있을 때의 加減方 그리고 다양한 증상에 대하여 민첩하게 대응하는 방법 등을 잘 서술하고 있다. 특히 附子の 중독을 石膏, 또는 석고가 들어간 白虎湯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보면 윤동리는 운기를 위주로 처방을 하였지만 치료의 기본인 변증시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기계적으로 用藥하지 않았음을 잘 알 수가 있다.

(2) 五臟

이 단락에서는 오장과 胃를 치료하는 처방과 이 처방을 썼을 때의 부작용과 특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의 치료방 등을 소개하고 있다.

肝에는 瀉靑丸, 心에는 十味導赤散, 黃連茯苓湯, 脾에는 瀉黃散, 肺에는 瀉肺湯, 腎에는 六味元, 溫腎散, 胃에는 平胃散을 쓴다고 하였는데 肝에 대한 것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瀉靑丸은 眼藥으로 효과가 있다.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증상에 따라 이어서 治熱之劑를 쓴다. 만약 부작용이 있어 肝虛하게 되면 六味元, 사물탕 등을 이어서 쓰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洗肝散과 當

歸龍薈丸은 위와 치료법이 같다.”

위의 내용으로 보면 윤동리는 어떤 증상에 한 가지 약만을 고집하지 않았고 약을 쓴 후의 증상을 자세히 살펴 민첩하게 대응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4) 雜錄의 내용 분석

초창결의 곳곳에는 하나의 처방을 썼을 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특이증상이 나타났을 때 원활하게 대응하는 방법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모든 내용을 종합해 놓은 곳이다. 이러한 誤治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기술해 놓은 내용은 『상한론』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으며 『상한론』 이후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윤동리는 用藥勸義에서도 “某方之害는 以某方救之하고 某藥之失은 以某藥解之”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고 또 “此劑似可效로대 效反斬奏면 以此藥則必效오 彼湯似可驗이로대 驗卒不見이면 以彼丸則必驗”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이러한 내용을 책으로 만든 것에 대하여 “祇論用藥一節은 則不必自讓云”이라 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藥을 誤用하여 副作用이 발생했을 때에도 기계적으로 무슨 약 무슨 처방을 쓴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辨證用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단순하지가 않다.

雜錄은 말 그대로 특정 처방을 誤用했을 경우, 單方藥 또는 2종류 이상의 약을 誤用했을 경우, 특정질환과 증상을 치료하는 처방 등 잡다한 내용을 섞어서 서술하고 있다. 이것을 3종류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처방 또는 특정 질환에 쓰는 처방을 誤用했을 경우나 효과가 없을 경우 대응하는 치료법을 제시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처방이 있다.

瓊玉膏, 人蔘養胃湯, 獨蔘湯, 附子理中湯, 附子四逆湯, 鐵粉散, 補中益氣湯, 升陽益胃湯, 建中湯, 補中治濕 實脾等湯, 補中治濕 胃苓湯之屬, 理中湯, 滋陰

健脾湯, 桂枝湯, 歸脾湯, 地黃湯, 滲濕湯, 蒼朮膏, 香砂平胃散, 正傳加味二陳湯, 五積散, 五積散加蘇木紅花稜朮, 熟料五積散, 增損五積丸, 真人化鐵湯, 導痰湯, 導痰五積等料加蘇紅稜朮, 導痰湯, 烏藥順氣散, 人參順氣散 六君子 四物之屬, 導痰湯 順氣湯之屬, 導痰破瘀之屬, 導痰破瘀之方, 忍冬膏, 順氣散 大羌活湯之屬, 九味羌活湯, 大羌活 疎風活血湯之屬, 四製香附丸, 活腎丸 川練散, 八味丸 升陽益胃湯, 八味鹿茸還少腦納之屬, 六八味 青娥 溫腎等劑, 六味地黃 古庵心腎丸, 六味知柏之屬, 六味丸 滋陰降火湯之屬, 滋陰降火湯, 升陽散火湯, 蒼朮茯苓二陳之屬, 松蕊丹, 五苓散, 木香流氣飲, 只角散 安胎飲 膠艾四物湯之屬, 榮衛返魂湯, 十六味流氣飲, 清暑六和湯, 回生散, 藿香 不換金等散 及木瓜之屬, 藿香正氣散, 茺蓮丸 導滯湯 黃芩芍藥之屬, 犀角地黃湯, 敗毒散, 敗毒散 順氣導痰之屬, 導赤各半湯, 十味導赤散, 八正 導赤 清心蓮子飲之屬, 八正導赤之屬, 滾痰丸, 承氣湯, 承氣白虎之屬, 承氣及諸下藥, 桃仁承氣湯 抵當丸 破癥湯之屬, 桃仁承氣湯, 承氣 白虎之屬, 白虎湯, 白虎湯 涼膈之屬, 竹葉石膏湯, 三黃石膏湯 升柴之屬, 紫雪, 黃連茯苓湯, 酒蒸黃連丸, 柴芩湯 五苓散, 柴胡四物湯, 柴胡四物湯 竹皮逍遙散之屬, 四物湯, 雙解散, 舒經湯, 柴胡四物湯, 柴胡瀉肝湯 清肝湯 清肝解鬱湯之屬, 龍膽瀉肝湯 清肝之劑, 清肝解鬱湯, 清肝解鬱湯 芫貝散之屬, 清心蓮子飲, 清心蓮子飲 黃連豬肚之屬, 朱砂安神丸 定志丸 養心湯之屬, 清心降火 石膏黃連, 清肺湯 調中湯之屬, 清肺寧嗽 調中之屬, 涼膈散, 瀉黃散, 生血潤膚飲, 瀉肺湯之類.

이상의 내용에서 보중익기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보중익기탕은 고기뼈가 목구멍에 걸렸을 때 1첩만 써도 기이한 효과가 있다. 물까마귀 깃털을 목구멍 속에 넣어 문지르면 걸렸던 물건이 나온다.

· 보중익기탕을 陰虛한 자에게 잘못 사용하면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하나 뒤에 반드시 사람이 말라서 죽는다. 급히 청심연자음을 쓰되 인삼 등은 반으로 줄인다. 서너 첩을 쓴 뒤 우황고로 풀어준다. 7~8일 뒤에 계속 자음강화탕을 쓴다.

· 보중익기탕은 비록 때 없이 추워서 떨 때 쓸 수 있는 약이나 병이 없이 튼튼한 사람이 이런 증상이 있다면 불환금정기산으로 주치한다.

· 보중익기탕 승양익위탕 등은 비록 升氣시키는 약제이나 상한 및 四時의 外感으로 脫肛症이 생긴데 쓰면 도리어 크게 해로우니 火가 폐와 대장을克하여 향문이 빠져나왔기 때문이다. 백호탕을 쓰되 인삼은 허실을 헤아려 넣는다.

· 보중익기탕, 건중탕 등은 비록 오래된 병, 重病이라도 땀이 나고 천식이 있는 자는 쓰지 않을 수 없는 약제이지만 써서 병이 더 심해지는 자는 火가 훈증하여 폐가 熱해지고 비장을 녹였기 때문이다. 백호탕에 허약한 자는 인삼을 넣어 쓰고 혹 죽엽석고탕을 쓴다. 소변이 短赤한 자는 황련복령탕 3첩을 쓰면 된다.”

둘째, 單方藥 또는 2종류 이상의 약을 誤用했을 경우 대처법을 소개한 것은 다음과 같다.

人參, 參朮, 參附, 參芪羔羊之屬, 附子, 半夏, 香藥, 龍腦, 犀角, 常山草果, 石膏, 石膏柴芩, 硝黃, 大黃, 芩連石膏, 黃連, 芩連芍藥木香檳榔桂心之屬, 芩連梔青之屬, 柴芩之屬, 柴青, 知柏之屬

이 중 인삼, 또는 參朮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독삼탕은 비록 발한하고 실사 시킨 뒤에도 열이 내려가지 않는 것을 치료하는 합당한 약제이나 황달이 나타나고 煩燥症이 있는 것은 肺熱이니 백호탕을 쓸 것이요 허한 자는 죽엽석고탕을 쓰고 황달이 있으면 시호백호탕을 쓴다.

· 인삼은 비록 허증을 보하는 약제이나 表症에 열이 있는 자는 써도 무방하다. 또 음식을 평소보다 배로 먹는 자는 胃熱이다. 노인은 먼저 죽엽석고탕을 쓰고 이어서 백호탕을 쓰며 少年은 백호탕만 쓴다.

· 인삼은 비록 熱毒에는 금기약이나 인삼과 부자의 열독에 찬 약제를 많이 썼으나 효과가 없는 자는 죽엽석고탕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다.

· 인삼을 誤用하여 發熱하는 자는 백호탕을 쓰고 小便이 澁한 자는 황련복령탕을 쓰고 晡時(申時)에 열이 심한 자는 牛黃膏를 쓰고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자는 죽엽석고탕과 보중익기탕과 육군자탕을 참고해서 보아야 한다.

· 인삼, 백출은 허증을 보하고 益氣하는 약제로 비록 출산 후에 氣短 喘急에 꼭 써야 할 약제이나 써서 효과가 없는 자는 燥尿가 있기 때문이다. 대변을 살펴본 후에 승기탕, 單大黃湯으로 主治하라.

· 인삼은 비록 삼초의 진액을 보하는 약제이나 過色하여 진액이 말라 목이 마른 자는 쓰면 반드시 실패한다. 인삼을 써서 실패했으면 석고를 쓸 수 있되 변조가 아주 심한 자는 열이 腑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황석고탕 등속을 쓰는 것이 좋으니 석고는 瀉火하고 大黃은 변비의 뭉친 것을 소통시키고 潤滑하게(通幽潤結)하기 때문이다.”

셋째, 특정질환과 증상을 치료하는 처방을 소개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舌上生舌, 人之卒死, 魚骨鯁喉中, 脚氣衝心, 喉痺, 霍亂因酒毒者, 浮脹因飲食者, 痢疾 腰以上熱 以下冷者, 久痢虛脫, 久痢諸藥無効, 久病便滑, 對食腹痛輒便者, 夜泄, 舌之腐者, 四時傷寒挾痰者, 傷寒瘧症, 小便淋瀝, 心肺積熱, 手足痿症, 婦人經血有餘, 人之猝死於暑者, 人之不畏寒者, 老人久病不時寒戰者, 老人乳腫, 膈上生血 血流不止, 頸項痰結, 外表有牽引或痰結, 胸腹痛及食滯, 傷寒發汗太早者, 濕痰火積於中而成咳者, 晚秋瘧痢及寒熱頭痛諸症, 腳踝生瘡出血不止者, 中風之症, 類中風, 小兒及大人 痘後 或熱病後, 降產於壬癸之日而自少腹衝心胸而痛者, 水結胸, 吐血中風, 產後泄瀉, 脫肛, 夜發瘧, 下疳瘡, 神祟眼疾, 木腎, 大腫破腫後.

이 중 이질 설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질이 허리 이상에서는 열이 나고 허리 아래가 찬 자는 비록 난치증이나 茱蓮湯으로 치료하고 구토하는 자는 활석 목향을 가해 쓴다. 이질의 초기에 寒熱이 있고 땀이 나지 않는 자는 패독산을 쓰고

3일 이내면 구미강활탕으로 치료한다. 血痢는 시호 사물탕으로 치료하니 이것들은 모두 한열이 있고 無汗한 증상이다. 그러나 뒤에 증상이 남아 있고 赤痢와 白痢가 섞여서 나오는 자는 茱蓮丸을 쓰고 붉은 색만 나오면 익원산에 석고를 가해 쓴다.

· 오랜 이질로 虛脫하게 되어야 비로소 水煎木香膏를 쓸 수 있고 餘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虛脫로 약을 써서는 안 된다. 뒤에 餘熱이 있는 자는 대황, 桂心 달인 물로 水煎木香膏 1~2알을 먹는다.

· 오랜 痢疾에 모든 약이 효과가 없으면 독삼탕을 쓰되 우황을 타서 먹고 소주에 우황을 타서 먹어도 좋다. 오래된 병에 대변이 묽으면 맥문동을 써서는 안 된다. 병이 생긴지 얼마 안 되어 대변이 굳으면 패독산 소엽, 갈근을 써서는 안 된다.

· 음식을 대하면 배가 아프고 대변을 보는 자는 脾속의 血이 熱하기 때문이니 서각지황탕을 써야 한다.

· 밤에 설사하는 자도 血熱症이니 서각지황탕을 쓴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윤희리는 임상 경험이 대단히 풍부하였으며 운기 처방에만 구애받지 않고 雜症에 대해서도 後世方을 활용하여 辨證施治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특히 100餘條가 넘게 처방을 誤用했을 때 나타나는 副作用과 이를 바로잡는 처방을 제시한 것은 타 의서에서는 볼 수 없는 독창적이며 독보적인 기록으로서 의학사적으로 또 임상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5) 單方條의 내용 분석

單方은 모두 39조가 있는데 질병과 치료하는 단방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腸垢便血(보릿대재를 조청으로 먹음)
2. 傷寒 후 眼盲(杏仁粥)
3. 회충(울무뿌리)
4. 伏暑年久(馬板挫를 달여 먹음)
5. 상한 時疾이 發熱未盡하고 나왔으나 항상 困

痛한 것(豆豉를 달여 먹음)

6. 모든 膈上燥痰(釀酒에 雞卵을 넣었다 먹음)
7. 모든 악창(두더지를 환으로 만들어 먹음)
8. 唇腫(麻竹間蟲을 잘라 바름)
9. 浮腫(개똥을 가루 내어 먹음)
10. 連珠瘡(死人の 손으로 瘡處를 문지름)
11. 痔漏(糖竹 달인 물로 씻음)
12. 天泡唐瘡(봉선화 벌레를 태워 먹음)
13. 산후복통(명태를 통째로 달여 먹음)
14. 肉毒 및 생선뼈가 걸린 것(봉선화 뿌리를 달여 먹음)
15. 토사곽란(솔밀의 그을음 또는 굴뚝 안의 검댕을 꿀물에 타 먹음)
16. 面上肺毒瘡(뽕나무잎을 가루 내어 먹음)
17. 소아의 疳瘡(검은깨 날기름을 바름)
18. 머리카락이 맞아서 시퍼렇게 부은 것(양고기 혹은 소고기, 돼지고기를 뜨겁게 하여 붙임)
19. 얼굴이 손톱에 긁혔을 때(생지황즙을 輕粉에 개어 바름)
20. 偏正頭痛(川芎, 香附子 煎服)
21. 熱厥頭痛(川芎, 細辛 煎服)
22. 구리나 쇠를 삼켰을 때(가래나무 열매를 먹음)
23. 혀가 갑자기 부을 때(百草霜을 식초에 개어 바름)
24. 생선뼈가 목구멍에 걸렸을 때(봉선화를 다려 먹음)
25. 쇠붙이나 칼에 상해 피가 날 때(생반하가루를 바름)
26. 곤장을 맞아 생긴 瘡(수태지 골수를 부은 곳에 터트리고 바름)
27. 엄지손가락이 붓고 대변이 실한 자(淸臟湯)
28. 전신타박상(살아있는 게 2마리를 짓쪄어 뜨거운 막걸리에 타먹음)
29. 전갈, 지네 등의 독(생반하가루를 식초에 개어 바름)
30. 走馬瘡(박쥐를 달여 먹음)
31. 비상독(감초탕, 녹두탕 등)
32. 소아의 적백이질(무우즙과 꿀을 반씩 섞어

잘 지어 먹음)

33. 漏痔(목화씨 껍질을 깨서 달여 먼저 훈증하고 뒤에 씻음)
34. 疔毒(파뿌리와 꿀을 함께 쪄어 붙임)
35. 治疔(여지핵을 껍질과 씨는 버리고 肉만 銀珠와 함께 쪄어 흰 곳에 붙임)
36. 손가락이 부은 것(돼지쓸개에 雌黃을 넣고 잘 섞어 손가락을 집어넣고 묶어줌)
37. 角弓症(척골의 볼록한 곳에 침을 놓거나 뜸을 뜸), 反張症(척골의 오목한 곳에 침을 놓거나 뜸을 뜸)
38. 走馬牙疳(구멍이에서 검은 것은 제거하고 아침에 손가락을 꼬리로 향해 곧장 몸을 뒤집어서 환부의 고름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39. 난산 및 태반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곽향정기산에 砂仁 4돈을 넣어 달여 먹음)

底本에는 40개로 되어있는데 36번이 빠져있어 모두 39개이다. 위에 있는 것이 複方도 있고 침구도 섞여 있지만 대부분 우리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제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6) 臟腑補瀉方의 내용 분석

장부보사방은 윤희동의 독창적인 五運合紀 이론에 의해 甲辛, 戊乙, 丙癸, 庚丁, 壬己의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1) 甲辛

甲은 土가 태과하여 水를 克하고 辛은 水가 不及하여 土의 克을 받는다. 脾濕이 태과하고 腎水는 不足하다. 이곳에서는 6甲年의 대표처방인 附子山茱萸湯과 6辛年의 대표처방인 五味子湯을 위시하여 腎着湯까지 모두 90개의 처방이 배속되어 있다. 이것은 동의수세보원에서 四象體質별로 배속되는 처방을 나열한 것과 비슷한데 創方은 없다. 처방의 성질은 주로 瀉脾하는 瀉黃散, 大便의 燥實을 치료하는 承氣湯類, 腎水不足을 치료하는 六味, 八味 등이 주류를 이룬다.

(2) 戊乙

戊는 火가 태과하여 金을 克하고 乙은 金이 不及하여 火의 克을 받는다. 心火가 태과하고 肺金이 不足하다. 이곳에서는 6戊年의 대표처방인 麥門冬湯과 6乙年의 대표처방인 紫菀湯을 위시하여 補中益氣湯까지 41개의 처방이 배속되어 있다. 배속된 처방의 특징은 心, 小腸의 熱을 治하는 瀉心湯, 導赤散, 諸熱症을 治하는 防風通聖散, 三黃湯, 越脾湯, 紫雪, 白虎湯 등이 배속되어 있다.

(3) 丙癸

丙은 水가 태과하여 克火한다. 모든 臟은 克을 당하면 반드시 쇠약해지나 오직 心臟은 克을 당하면 더욱 치성하게 타오른다. 癸는 火가 不及하여 水의 克을 당한다. 여기에는 6丙年의 대표처방인 黃連茯苓湯과 6癸年의 대표처방인 黃芪茯神湯을 위시하여 加味溫膽湯까지 모두 27개의 처방의 배속되어 있다.

동의수세보원에서는 처방혼용불가의 원칙이 있어 하나의 체질에 배속된 처방을 다른 체질에서 쓸 수 없지만 여기에서는 중복된 처방들이 많이 열거되어 나온다. 이곳의 黃連茯苓湯은 甲辛條에 2번, 戊乙條에 1번, 이곳 丙癸년에도 한 번 더 나온다. 五苓散, 補腎丸, 附子山茱萸湯, 五味子湯, 加減八味丸, 清心蓮子飲은 甲辛條에도 나오는데 加減八味丸의 처방구성은 이곳과 그곳의 내용이 다르다. 補中益氣湯, 十味導赤散, 清心蓮子飲은 戊乙條에서도 나온 처방이다. 그리고 黃連茯苓湯, 清心蓮子飲은 甲辛, 戊乙, 丙癸條에 모두 나온다. 이를 통해 보면 윤희리는 운기를 통해 체질을 구별한 것은 아닌 듯하다. 다시 말해 운기를 통해 사상체질처럼 특정체질을 나눈 것이 아니고 운기를 위주로 하여 증상에 따라 치료를 우선시 한 것이다. 태어난 해와 당년의 운기에 영향을 받아 장부의 병리가 특징적으로 발현하지만 질병은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나타나는 病症에 의거하여 辨證施治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여기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지나가야 할 내용은 윤희리가 “다른 모든 臟은 克을 당하면 쇠약해지나 오직 心臟은 大臟(火臟)으로서 克을 당하면 더욱 치성하게 타오른다”는 것이다.

이것은 「運氣衍論」의 六年三紀相通의 乙戊條와

본 단락의 黃連茯苓湯條에서 거듭하여 말하고 있다. 이것은 윤희리가 운기이론과 오랜 임상경험을 결합하여 밝힌 중요한 이론이라고 사료된다.

(4) 庚丁

庚은 金이 태과하여 木을 克하고 丁은 木이 不及하여 金의 克을 받는다. 肺金이 태과하고 肝木이 不足하다.

이곳에는 6庚年의 대표처방인 牛膝木瓜湯과 6丁年의 대표처방인 菴蓉牛膝湯을 위시하여 解毒四物湯까지 21개의 처방이 나열되어 있다. 배속처방은 肺實을 瀉하는 瀉白散, 人蔘瀉肺散, 上焦의 熱을 治하는 涼膈散, 肝을 補하는 補肝丸, 그리고 六味, 八味四物湯類의 처방이 주로 배속되어 있다.

(5) 壬己

壬은 木이 태과하여 土를 克하고 己는 土가 不及하여 木의 克을 받는다. 肝木이 태과하고 脾土가 不足하다. 이곳에는 6壬年의 대표처방인 苓朮湯과 6己年의 대표처방인 白朮厚朴湯을 위시하여 順氣和中湯까지 35개의 처방이 배속되어 있다. 배속처방은 肝實을 治하는 瀉青丸, 洗肝散, 肝의 鬱火를 治하는 清肝解鬱湯, 筋疝을 治하는 龍膽瀉肝湯, 脾의 虛症을 治하는 益黃散, 補脾散, 六君子湯, 參苓白朮散, 參苓白朮丸 등의 처방이 나열되어 있다.

7) 六氣十二之藥의 내용분석

(1) 子午少陰君火 同乙年

이곳에는 子午少陰君火를 治하는 대표처방인 正陽湯을 위시하여 八正散까지 모두 8종류의 처방이 나열되어 있다. 이 중 心 小腸의 熱을 治하는 導赤散, 赤茯苓湯, 十味導赤散, 黃連茯苓湯, 八正散 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2) 卯酉陽明燥金 同戊年

이곳에는 卯酉陽明燥金을 治하는 대표처방인 審平湯을 위시하여 益胃升陽湯까지 10종류의 처방이 나열되어 있다. 여기에는 肺와 表裏를 이루는 大腸과 관련된 처방이 많이 있는데 大腸의 實熱을 치

료하는 瀉白散, 暴泄을 치료하는 黃連茯苓湯, 十味導赤散, 大便不通을 치료하는 大小承氣湯, 七宣丸, 下痢膿血을 치료하는 黃芩芍藥湯, 導滯湯, 大腸의 虛寒을 치료하는 實腸散 그리고 大腸의 虛脫을 치료하는 益胃升陽湯 등이 그것이다.

(3) 辰戌太陽寒水 同甲辛年

이곳에는 辰戌太陽寒水를 치료하는 대표처방인 靜順湯을 위시하여 加減八味丸까지 6종류의 처방이 나열되어 있다. 膀胱의 實熱로 인한 소변불통을 치료하는 葵子湯, 益元散, 膀胱이 虛하여 생긴 小便不禁을 치료하는 既濟丸, 加減八味丸 등이 있다.

(4) 丑未太陰濕土 同壬己年

이곳에는 丑未太陰濕土를 치료하는 대표처방인 備化湯을 위시하여 補中益氣湯까지 9종류의 처방이 배속되어 있다. 脾胃不知를 치료하는 平胃散, 正傳加味二陳湯, 脾胃虛弱을 치료하는 異功散, 養胃進食湯 그리고 人蔘養胃湯, 升陽益胃湯, 補中益氣湯 등이 있다.

(5) 寅申少陽相火 同丙癸年

제목 아래에 “命門熱은 庚丁年과 같으니 肝氣가 鬱滯된 것이다.”라는 말이 붙어 있다.

이곳에는 寅申少陽相火를 치료하는 대표처방인 升明湯을 위시하여 溫腎散까지 26종류의 처방이 나열되어 있다. 윤동리는 少陽相火를 주관하는 장기가 三焦임으로 이곳에서 三焦에 대하여 특별히 부연설명하고 있다.

“上焦는 氣와 같고 中焦는 濕과 같고 下焦는 火와 같다.

上焦는 降法을 위주로 치료해야 하고,

中焦는 通法을 위주로 치료해야 하고,

下焦는 溫法을 위주로 치료해야 한다. 이것은 비록 命門에 속하나 사실은 心包絡의 腑이다. 心包絡은 心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곳에는 三焦約하여 大小便不通하는 것을 치료하는 只穀丸, 疎導三焦하여 快氣潤腸하는 木

香檳榔丸이 있고, 七情鬱結을 치료하는 七氣湯, 四七湯 등이 있으며 一切氣와 관련된 병을 치료하는 天香正氣散, 神保丸, 撞氣阿魏丸, 木香流氣飲 등이 있고 下焦의 無火를 치료하는 加味八味元, 八味元, 溫腎散 등이 있다.

(6) 巳亥厥陰風木 同丁庚年

이곳에는 巳亥厥陰風木을 치료하는 대표처방인 敷和湯을 위시하여 桃仁承氣湯까지 14개의 처방이 나열되어 있다.

윤동리는 肝과 表裏가 되는 膽病을 치료하는 처방을 이곳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膽虛恐畏를 치료하는 仁熟散, 膽實熱煩悶을 치료하는 半夏湯 또 心과 膽이 相通하고 胞門과 肝이 相關성이 있고 胞는 血과 有關하다 하여 參胡溫膽湯, 四物湯, 八物湯, 六味元, 黃連茯苓湯, 柴胡四物湯, 柴胡破瘀湯 등의 처방을 소개하고 있다.

8) 經血經不調

經血經不調는 經血不調와 月經不調를 의미하는 것 같다. 이 절은 運氣와는 관련 없이 婦人科 질환에 대한 처방을 소개하고 있다.

이곳에는 經血이 虛冷하여 不調한 것을 치료하는 調經湯, 千金調經湯, 求嗣方인 琥珀調經丸, 楚臺丸, 經來腹通을 치료하는 清熱調經湯, 月經不調를 치료하는 清經四物湯, 烏鱗四物湯, 四製香附丸, 七製香附丸 등 모두 13종류의 부인의 병을 치료하는 처방을 소개하고 있다.

9) 臟腑把守藥

把守는 우리가 파수꾼이란 말을 하듯이 경계하여 지킨다는 뜻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장부파수약은 오장육부와 관련된 병을 치료하는 약의 의미로 쓰고 있다. 장부파수약은 오장육부와 관련된 風을 치료하는 약, 熱을 치료하는 약, 寒을 치료하는 약, 濕을 치료하는 약(燥濕藥), 潤燥시키는 약, 그리고 引經藥을 밝혀 놓고 있다. 이를 먼저 도표로 만들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윤동리는 6장6부로 나누어 설명을 했는데 治熱藥

Table 1. Korean herbal medicines for treating the diseases of Six Zang Organs and Six Fu Organs.

臟腑	治風藥	治熱藥	治寒藥	燥濕藥	潤燥藥	引經藥
肝	川芎	氣 柴胡	氣 吳萸	白朮 川芎	當歸	上柴胡川芎
		血 黃芩	血 當歸			下青皮
心	細辛	氣 麥冬	氣 桂心	黃連 茯苓	麥冬	上獨活細辛
		血 黃連	血 當歸			
脾	升麻	氣 白芍	氣 吳萸	白朮	麻仁	上升麻芍藥
		血 大黃	血 當歸			
肺	防風	氣 石膏	氣 麻黃	桑白皮	杏仁	上升麻白芷蔥白
		血 山梔	血 乾薑			
腎	獨活	氣 玄蔘	氣 細辛	澤瀉	柏實	上獨活肉桂鹽酒
		血 黃柏	血 附子			
胃	升麻	氣 乾葛		白朮		上乾葛升麻白芷
		血 大黃			下石膏	
大腸	白芷	氣 連翹	氣 白芷	秦芎	硝石	上升葛白芷
		血 大黃	血 秦芎			下石膏
小腸	藁本	氣 赤茯苓	氣 茴香	車前子	茴香	上藁本羌活
		血 木通	血 玄胡			下黃柏
三焦	黃芪	氣 滑石	氣 附子	陳皮	山藥	上柴胡川芎
		血 地骨皮	血 川芎			下青皮
膀胱	羌活	氣 連翹	氣 麻黃	茵陳	茴香	上藁本羌活
		血 黃柏	血 桂枝			下黃柏
膽		氣 連翹	氣 生薑			上下與肝同
		血 柴胡	血 川芎			
包絡		氣 麥冬	氣 附子	茗	桃仁	上柴胡
		血 牡丹	血 川芎			下青皮川芎

과 治寒藥을 氣血로 나누고 引經藥을 上下로 나누는 것이 특징적이다. 부연설명하면 肝의 氣分の 熱은 柴胡로 다스리고 血分の 熱은 黃芩으로 치료하며, 肝의 氣分の 寒은 吳茱萸로 다스리고 血分の 寒은 當歸로 치료하며, 肝經에서 위로 引經하는 약으로 柴胡, 川芎을 쓰고 아래로 引經하는 약으로는 靑皮를 쓴다는 것이다.

包絡의 藥을 보면 治熱藥은 心과 비슷하고 治寒藥은 三焦와 같으며 引經藥은 三焦와 비슷하다.

이처럼 6장6부의 治熱藥과 治寒藥을 氣와 血로 區分하고 引經藥을 上下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은 張元素의『臟腑虛實標本用藥式』과『醫學入門』등의 이론을 계승하여 집대성 한 듯하다.

10) 雜錄

앞에서도 雜錄이 있었지만 이곳과는 성격이 다르다. 앞에서는 특정 처방이나 藥을 誤用했을 때 민첩하게 대응하는 치료법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곳에서는 운기와는 관련 없이 雜病을 치료하는 처방 86종류를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다. 既成方인지 본인의 創方인지 밝혀놓지를 않아 명확하게 구별은 안되나 대부분이 既成方이라고 생각되나 간혹 본인의 創方이라고 생각되는 처방이 있으며 加味方은 기존의 처방에 본인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곳의 처방은 윤희리가 평소 임상에서 효과가 뚜렷했던 것을 소개한 것이므로 후학들이 배워서 활

용할 가치가 크다고 생각되며 그의 처방소개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그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기술하고 있어 눈여겨 볼 만한 곳이 많이 있다. 운동리의 처방이라고 여겨지며 그의 풍부한 임상경험이 서술되어 있는 처방 중의 하나인 五論湯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五論湯

인삼 5푼, 백출(볶음), 백복령, 당귀(술로 씻음), 천궁, 백작약(볶음), 생지황(불에 말림), 반하, 남성(말려서 볶음), 천마 각 1돈, 진피, 방풍, 강활, 독활 각 6푼, 황련(말려서 볶음), 황금(술에 축여 볶음) 1돈, 竹瀝, 生薑汁 각 1~3숟가락. 달여 새벽에 따뜻하게 먹는다.

- ① 좌반신불수에는 진교, 도인을 가한다.
- ② 우반신불수에는 황기, 목향, 오약을 가한다.
- ③ 痰이 심장의 구멍을 막아 말을 잘하지 못할 때에는 원지, 석창포, 맥문동, 과루인, 지실을 가한다.
- ④ 입과 눈이 돌아갔으면 백지, 백강잠을 가한다.
- ⑤ 痰涎이 치성하면 지실, 과루인을 가한다.
- ⑥ 사지와 몸에 감각이 없고 마비가 오면 오약, 백강잠, 얇은 옥계를 가한다.
- ⑦ 머리와 눈이 어지럽고 아플 때는 백지, 만형자, 고본을 가한다.
- ⑧ 손발이 당길 때에는 조각, 목향을 가한다.
- ⑨ 左右의 손발이 모두 마비가 와서 쓰지 못할 때에는 우슬, 모과, 의이인을 가한다.
- ⑩ 근골이 아플 때에는 계지, 유향, 몰약을 가한다.
이것은 風, 火, 氣, 濕, 虛로 인해서 생긴 증풍을 모두 치료함으로 五論湯이라고 이름한다.

이후에 붙어 있는 五行盛衰之圖, 十干起運圖, 十二支司天訣, 五運之歲 太過不及, 六十歲運氣主客及民病, 六十年客氣旁通圖, 審病 등의 내용은 동의보감의 天地運氣의 내용을 후세에 책을 만들면서 덧붙여 넣은 것이므로 큰 의의가 없어 분석을 생략한다.

3. 結 論

『초창결』 중에서 후반부에 있는 「用藥勸」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운동리는 季父인 農村 尹雨教에게서 의학을 배웠고, 農村은 운동리의 부친인 讀易齋 尹頤教에게서 의학을 배워 3세를 이어왔다 하였으니 집안의 의학은 부친인 尹頤教부터 시작된 듯하다.

운동리는 陣無擇의 『三因方』에 있는 처방을 기본으로 삼고 있으나 후세방, 특히 『동의보감』에 있는 처방을 운기처방으로 활용하고 있다.

운동리는 임상경험이 대단히 풍부하여 특정처방이나 藥을 誤用하여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이에 민첩하게 대처하는 법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의서에서 볼 수 없는 내용으로 의학사적으로, 임상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사료된다.

『用藥勸·單方條』에는 39조의 單方藥을 소개하고 있는데 비록 複方도 있고 침구 관련 내용도 있지만 우리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제 또는 방법으로 질병을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운동리는 五運合紀의 이론에 의해 甲辛條에 90개 처방, 戊乙條에 41개 처방, 丙癸條에 27개 처방, 庚丁條에 21개 처방, 壬己條에 35개 처방을 나열하여 『동의수세보원』에서 사상체질 아래에 소속된 처방을 나열한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동의수세보원』에서는 사상처방혼용불가의 원칙에 의해 하나의 체질에 배속된 처방을 다른 체질에 중복하여 기술하지 않았으나 이곳에서는 辨證施治를 위주로 하여 처방이 중복되어 많이 나오고 있다.

운동리는 六氣司天에 따른 처방도 배열하여 子午少陰君火가 司天했을 쓸 수 있는 처방 8종류, 卯酉陽明燥金이 司天했을 쓸 수 있는 처방 10종류, 辰戌太陽寒水가 司天했을 쓸 수 있는 처방 6종류, 丑未太陰濕土가 司天했을 쓸 수 있는 처방 9종류, 寅申少陽相火가 司天했을 쓸 수 있는 처방 26종류, 巳亥厥陰風木이 司天했을 쓸 수 있는 처방 14종류를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寅申少陽相火조에서 上焦는 降法으로, 中焦는 通法으로, 下焦는 溫法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三焦의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다.

운동리는 臟腑把守藥에서 6臟 6腑에 대해 治風藥, 治熱藥, 治寒藥, 燥濕藥, 潤燥藥, 引經藥을 소개하고 있고 治熱藥, 治寒藥은 다시 氣와 血로 구분하고 인경약은 上下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張元素의 『臟腑虛實標本用藥式』과 『醫學入門』의 이론을 계승하여 집대성한 것이다.

그는 책의 뒷부분에서 운기와는 관련이 없이 月經不調에 쓸 수 있는 13종의 처방을 소개하고 있고 雜錄에서는 雜病을 치료하는 처방 86종류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 처방은 그가 평소에 임상에서 효과가 뚜렷했던 것을 소개한 것으로 후학들이 활용할 가치가 있는 중요 내용이라 사료된다.

끝으로 한마디 첨부한다면 『草窓訣』은 비록 분량은 많지 않지만 위대한 의가이며 운기학자인 운동리의 평생의 임상경험이 담겨져 있는 훌륭한 의서이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 연구한 것과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한국의학사에서 그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후학들이 그의 의학이론과 풍부한 임상경험을 널리 활용하기를 기대해본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6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No.201601500001).

References

1. Kim SG ed.. An Outline of Korea Medical(43). Seoul. Yeogangpublisher. 1994.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43冊). 서울. 麗江出版社. 1994.
2. Yoon DR. Chochangkyeul. Manuscripts from the Handok Medico - Pharma - Museum (No. 52490).
尹東里. 草窓訣. 韓獨醫藥博物館 所藏 筆寫本 (유물번호 52490).
3. Yoon CC original work. Park IS ed.. Chochangkyeul. Seoul. Hanseongpublisher. 1980.
尹草窓 著. 朴寅商 篇. 草窓訣. 서울. 漢城出版社. 1980.
4. Chin E. Samingeukilbyeongjeungbangron.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83.
陳言. 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5. Heo J. Original Donguibogam. Seoul. Namsandang. 1987.
許浚. 原本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7.
6. Kim JT. A Study on the life of Yoon Cho Chang and Cho-Chang-Kyeul. Daeje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1993.
金準泰. 尹草窓의 生涯와 草窓訣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1993.
7. Yoon SH. A Comparative Analysis about Various Editions and Bibliographic Research on 『Chodangyugoul』. WonKwang University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2014.
윤서현. 草堂遺訣의 교감 및 서지학적 연구.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2014.

